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총력'

전북도, 민간분야 저탄소생활 실천문화 확산

전북도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7개 사업에 45억원을 투입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먼저,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정·상가 등 약 2,500여 개소에 대한 에너지 진단·컨설팅과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206→215천 세대) 및 기후변화 교육을 통하여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위한 범도민 저탄소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진단 컨설팅은 에너지 전문가(컨설턴트)가 직접 가정·상가에

방문해 전기, 도시가스, 수도 사용실태를 진단하고 대기전력 측정 및 가전제품 점검을 통해 맞춤형 절감책을 제시한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입세대별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산정하여 인센티브 지급하며, 현재까지 도내 약 206천세대 가입하여 온실가스 3만6천여 톤CO2/년 감축한다.

기후변화 교육은 도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녹색생활 실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기후변화교실, 업사이클링(재활용), 청소년 기후학교 등 교육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기후변화적응 선도 시범사업, 기후변화대응력 증진사업, 쿨루프 설치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도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적응 선도 시범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도내 2개소에 벽면녹화, 녹지조성 등 냉각 단열효과를 통한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기후변화대응력 증진사업은 버스정류소에 냉난방시설 및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한다. 쿨루프 설치사업은 도내 어린이집 및 마을회관 옥상에 차폐 페인트를 도색하여 냉각 단열효과를 통한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김진성 기자

올해 성과창출 키워드는 '협업'

도, 국가예산 확보·일자리 창출 전 실·국 협업과제로 설정

전북도는 올해 도정 성과창출의 키워드를 '협업'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지난해 전라도 정도 천년에 이어 올해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첫 해로, 송하진 지사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도민의 자존 의식과 체질강화를 통해 새로운 천년을 향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을 것을 선언했다.

이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하나로 전북도는 주요정책에 대한 부서 간 협업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112명의 과장급 이상 간부 모두에게 1인당 3~5건씩 총 330건의 책임관리 과제를 부여했다.

민선 7기 공약사업(101개), '19년 전북대도약 10대 핵심프로젝트, 분야별 역점정책 등 도정의 핵심정책을 모두 망라했다. 도정 및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48건의 과제를 새롭게 추가하였고, 신규과제를 제외한 282건의 과제 중 163개(57.8%) 과제는 지난해 보다 목표를 상향하는 등 주요 정책의 완성도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내년 국가예산 확보와 분야별 일자리 창출을 모든 실·국의 협력과제로 설정하였고, 최근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사업추진이 확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

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사항도 과제로 포함했다.

이번에 선정된 책임관리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도 이뤄진다.

우선 실·국장은 도시사와, 과장급은 행정·정부 부지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모든 과제를 부서·개인별 직무성과 지표로 설정했고, 6월과 12월에 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전 직원의 성과연봉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개인별 근무성적평정과 인사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부서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새롭게 마련했다.

2개 이상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도정현안 정책을 '협업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설명회 내년부터 전북도가 주관

5월 소통간담회·9월에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설명회가 2020년부터는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가운데 13개 기관으로 확대되어 개최될 전망이다.

최근 열린 2019년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설명회는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인전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이 주관하고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ICT발전협의회가 공동주최하여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220여명의 ICT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설명회는 4개 공공기관의 369

억원 규모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설명과 예산액, 발주시기, 사업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각 공공기관별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도내 우수 6개 ICT기업에 대한 소개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역량을 보유한 도내 ICT기업이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9월에는 도내 ICT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내 ICT기업과 공공기관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전북도는 올해 사업설명회를 바탕으로 내년도 정보화사업 설명회를 주관하여 4개 공공기관에 나머지 혁신도시이전 8개 공공기관을 더해 12개 공공기관과 전라북도 등 총 13개 기관 정보화사업 설명회를 내년 1월 초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설명회 당시 배부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오는 5월중에 도내 ICT기업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정보화실무자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도내 ICT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내 ICT기업과 공공기관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에티면제에 관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전북지역 예비티당성 면제 차별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민주당총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성열, 정동영, 박주현, 김광수 의원.

오늘부터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27일 양일간 관할 구·시·군선거위원회에서 일제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월 13일 실시하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도내 109개 조합(농협 92개, 수협 4개, 산림조합 13개)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7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108개 조합에 총 286명이 등록하여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일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3일에 확정된다.

전북선거권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선택 아닌 필수!

국가 50%·도 30% 지원...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 가능

전북도는 25일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과, 배, 단감, 뽕은감, 원예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 버섯류 4종 등 30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입기간은 사과, 배, 단감, 뽕은감은 3월 22일까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과 버섯재배사 및 버섯류는 11월 29일까지이다.

시설작물(22종)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부추, 상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썩박이다.

버섯(4종)은 표고·느타리·양송이·새송이 버섯(단, 표고 원목재배는 6월 가입)이다.

보험료는 국가가 50%, 전북도 및 시군이 30%를 지원하여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 가능하다.

사과, 배, 단감, 뽕은감은 지난해 불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일소피해) 발생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특약상품으로 가입했던농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일소피해 등에 대해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계약 가입 상품으로 전면 개선했다.

다만,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소피해, 가을동상해는 농가가 주계약 보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용 시설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피해 감소 통계를 반영해 전년 대비 농업시설 보험료율을 전북 평균 21%(전국 평균 13%) 인하했다.

또한, 올해부터 기상특보가 발령된 재해로 인해 시설작물의 피해가 발

생하면, 시설물의 피해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했다.

농작물 가입자격 및 요건은 사업 실시지역에서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가입 및 신청은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순해보험)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에서 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불철 저온피해와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 등 재해가 다양화되고 빈발함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올해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